

터커 “1루수 OK ... 팀 PO 이끌겠다” 멥덴 “콧수염 만큼 멋진 투구로 승부”

담양서 격리생활하며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와 투수 다니엘 멥덴이 2021시즌 ‘가을잔치’의 주역을 노린다.

터커와 멥덴은 지난 18일 나란히 입국에 담양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1루수 OK”, “팔꿈치 이상 무”를 외치며 2021시즌 각오를 밝혔다.

익숙한 KIA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된 터커는 “다시 팀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이미 적응한 팀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이 발전하는 팀이라 더욱 만족한다”며 “젊은 선수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 팀도 강해지고 있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의 모습에서 몇 조각의 퍼즐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2019시즌이 끝난 뒤 장타력에 초점을 맞춰 변신에 성공한 터커는 올 시즌에는 ‘1루수’ 도전을 앞두고 있다.

터커는 “지난 시즌을 마칠 무렵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다. 당시 스윙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기술·신체·멘탈 등 모든 부분에 신경쓰면서 감각 유지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은 내가 1루수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1루를 맡는다면 상대 투수에 강한 외야수를 쓸 수 있어, 전술적 유연함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지난 시즌 중 감독님이 물었듯 때

터커

대학 2학년까지 1루수 주 포지션 수비와 타격 고루 비중 두고 훈련 모든 기록의 수치 향상이 올 목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대학 2학년까지 1루수 주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어색함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험을 살린 터커는 풋워크와 위치 선정에 신경써 변신을 준비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수비와 타격에 고루 비중을 두고 훈련을 할 계획이다.

“발전된 시즌”이 터커의 2021시즌 목표다.

터커는 “모든 기록의 수치가 지난해보다 향상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은 특정 부분만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모든 부분의 성적이 고루 좋아졌으면 한다. 또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움이 되겠다. 내 성격이 고루 좋아진다면 팀도 포스트시즌 진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팬들의 응원이 있어야 선수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최고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다. 하루 빨리 팬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멥덴은 올 시즌 낯선 리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하지만 멥덴에게 익숙한 이들이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물론 브룩스·터커와도 한술밥을 먹은 경험

멥덴

윌리엄스 감독·브룩스·터커 모두 미국에서 한술밥 먹은 경험 팔꿈치 수술 받았지만 몸상태 좋아

이 있다.

그는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KIA의 일원이 됐다는 점과 새로운 무대에서 뭘 기회를 얻게 될 것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멥덴은 KIA를 선택한 이유로 “윌리엄스 감독님과 인연이 결정적이었다. 브룩스와도 한 팀에서 같이 뛰었고, 터커 역시 팀(휴스턴) 동료였다.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과는 오를랜드에서 코치와 선수로 2년간 함께 뛰며 친분이 있었다. 감독님은 ‘KBO에서 뛰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 선발투수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다”며 “미국에서 선발과 중간계투를 오가며 보직이 뚜렷하지 않았다. 선발을 보장받은 점에서 만족스럽고,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만큼 몸상태에 대



KIA 타이거즈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둔 터커(왼쪽)와 KBO 데뷔를 준비하는 멥덴. <KIA 타이거즈 제공>

한 우려도 있지만, 멥덴은 자신감을 보였다.

멥덴은 “몸 상태는 매우 좋다. 어깨와 팔꿈치 모두 최상이다. 지난해 2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이 늦어져 재활 시간은 충분했다”며 “시즌 마지막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 확진으로 몸 상태에 이상은 없었다. 구속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좋았던 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멥덴은 트레이드 마크인 ‘콧수염’을 유지한 채 마운드에서 공격적인 투구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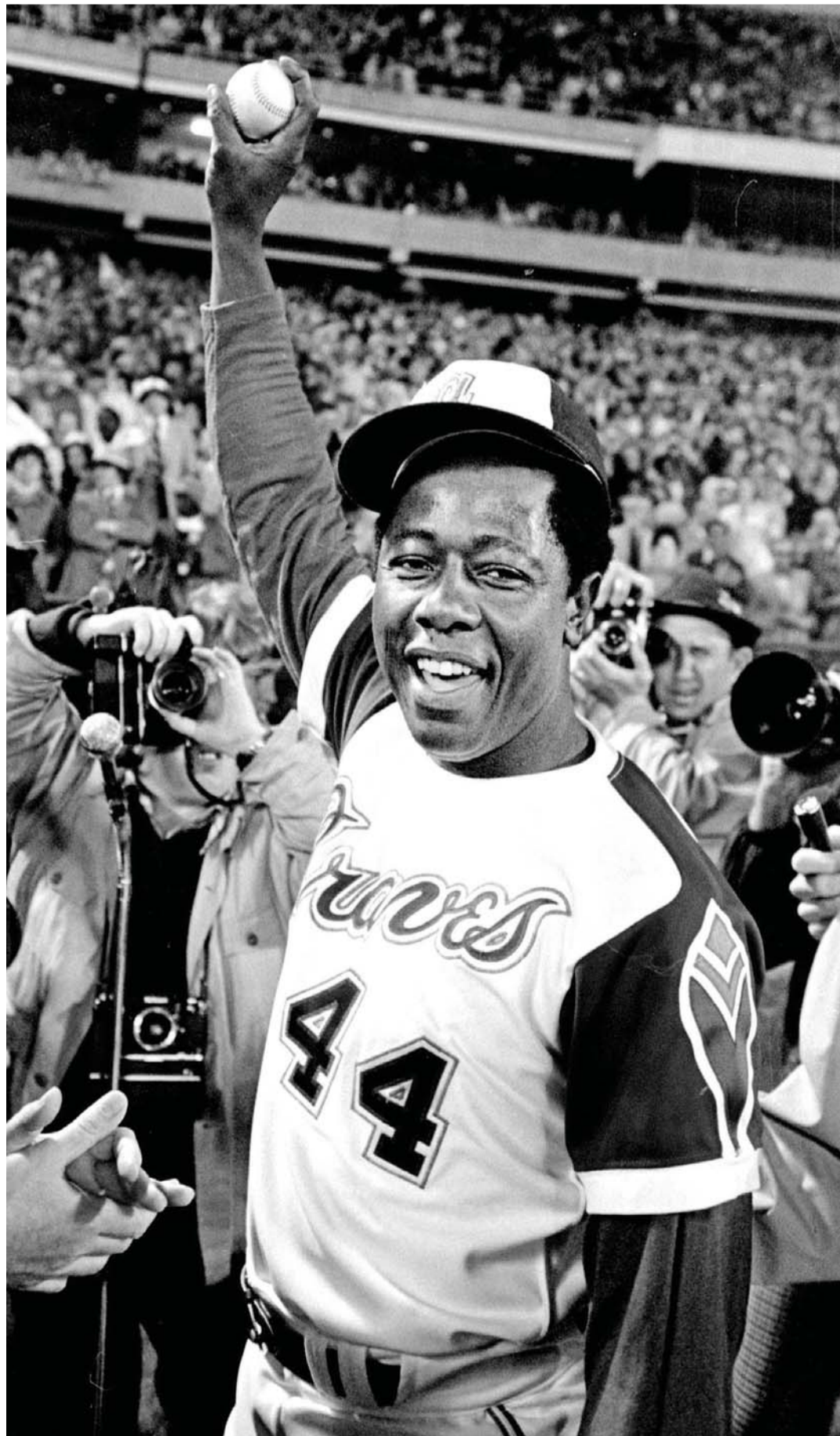
그는 “대학 시절 콧수염을 길러 지금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주변에서 좋아해 줘서 스타일을 유지하

고 있다. 이제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콧수염을 기르고 있어 시즌에 들어가면 기대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공격적 투구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다. 그러면서 팀의 승률을 높이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슬라이더와 커터를 효과적으로 구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KBO리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구단에서 마련해 준 전력분석 자료를 공부 중이다”며 “KIA에서 뛰게 돼 기쁘고, 빨리 팬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팬 여러분의 응원 속에 좋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 전설의 홈런왕 행크 에런 ‘별’이 되다



통산 715번째 홈런으로 베이브 루스의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 뒤 기뻐하는 선수시절 행크 에런. /연합뉴스

통산 755개 홈런 ... 백인 우상 루스 기록 깰 때 살해협박 받기도 한국 두차례 방문 “훈련 외에는 홈런왕이 된 특별한 비결은 없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행크 에런이 2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6세. 그의 별세 소식은 애틀랜타 지역 매체들이 고인의 말을 인용해 맨 처음 보도했다.

베이브 루스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선 에런은 인종차별을 견뎌낸 역대 최고 타자 가운데 한 명이다.

미국의 복싱 전설 무하마드 알리가 생전에 “나 자신보다 더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에런을 꼽은 것이 그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에런의 통산 755개 홈런 기록은 2007년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의해 깨졌으나, 약물 스캔들에 휘말린 본즈보다 에런을 여전히 ‘진짜 홈런왕’이라고 여기는 팬들이 많다.

1934년 앨라배마주 모빌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8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에런은 야구 장비를 사지 못해 막대기와 병마개로 혼자 타격 연습을 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 954년 스무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이듬해 처음 올스타에 선정된 에런은 1956년 내셔널리그(NL) 타격왕, 1957년 최우수선수(MVP) 타이틀을 각각 거머쥐었다. 1957년에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양키스를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결정타를 놓쳤다.

1966년 브레이브스가 다시 애틀랜타로 홈구장을 이전한 것을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에도 눈을 뜨게 됐다. 당시 애틀랜타는 마틴 루서 킹 목사 등이 활동하던 인권운동의 핵심지였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500홈런과 3000안타를 동시에 달성하고, 8시즌 40홈런 이상을 치면서 승승장구하던 에런은 백인들의 우상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에 근접하면서 극심한 인종차별 모욕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에 1개 모자란 채로 1974년 정규시즌을 시작하려던 그에게 “은퇴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려” 등의 협박 편지가 쇄도한 것이다. 연방수체국에 따르면 에런은 100만 통에 가까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에런이 1974년 4월8일 루스의 기록을 넘어 통산

715번째 홈런을 치자 백인 남성들이 그라운드엔 난입, 집에서 TV 중계를 보던 가족이 공포에 질린 것은 유명한 일화다.

1975년 밀워키 브루어스로 트레이드된 에런은 두 시즌을 더 뛰고 23년에 걸친 메이저리그 경력을 마무리했다.

에런이 세운 통산 최다 타점과 장타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통산 안타도 3위에 올라 있다. 은퇴 후 1982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에런은 2002년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다.

에런은 생전 두 차례 한국을 찾았다.

1982년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부사장이던 에런은 8월 한국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당시 에런은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7백55개의 홈런을 날릴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재능보다 온 좋게 23년간 꾸준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에런은 “훈련 외에는 홈런왕이 된 특별한 비결이 없다”며 “수사라면 누구나 쥐는 슬럼프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훈련하며 극복할 수 있다. 주심의 불판정이 불만스러워도 ‘심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측면 수비수 박준강 영입

광주FC가 투지 넘치는 9년 차 측면 수비수 박준강(29·사진)을 영입했다.

광주는 24일 “부산아이파크에서 맹활약한 우측 수비수 박준강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170cm·65kg의 날렵한 체격의 박준강은 대인 방어 능력과 태클, 투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그는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크로스로 공수에서 모두 활력적 역할을 한다.

광양제철고-상지대를 거쳐 2013년 드래프트 3순위로 부산에 입단한 박준강은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던 시절을 제외하고 부산 유니폼을 입고 활약해 왔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프로 첫해 30경기를 소화하며 주목을 받은 박준강은 당시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U-23 대표팀에 소집돼 2경기를 소화했다.

이후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부산 수비의 주축으로 성장한 박준강은 K리그 통산 130경기에 나와 2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김호영 감독은 “박준강은 K리그에서도 잔뼈가 굵고, 그라운드에서는 투혼을 발휘하는 등 경기장 안



팍에서 좋은 효과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선수라며 “박준강의 영입으로 수비 전력 강화와 함께 공격 전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강은 “상대 팀으로 마주했던 광주는 언제나 원팀으로 똘똘 뭉쳐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그 점이 나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며 “새로운 도전을 광주에서 하게 돼 기쁘다. 그라운드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6.01m 득점’

축구 최장거리 골 기네스북 등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2(4부리그) 뉴포트 카운티의 골키퍼 톰 킹(26)이 골킥으로 뽑아낸 골이 축구 역대 최장 거리 득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기네스 측은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인 골키퍼 톰 킹이 축구 역대 최장 거리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기네스 측에 따르면 킹은 지난 19일 치러진 리그 2 22라운드 첼튼엄과 원정 경기에서 전반 12분 골 지역에서 전방을 향해 골킥을 날렸다. 바람을 타고 상대 진영 페널티아크 부근까지 날아간 공은 한 차례 바운드를 뒤 상대 팀 골키퍼 킨을 넘어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네스 측 심사를 거친 이 골은 96.01m를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통산 135경기 만에 첫 골을 터트린 킹은 최장 거리 득점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이번 득점으로 킹은 2013년 11월 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 소속의 베고비치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작성한 기존 역대 최장 거리 득점(91.9m)을 7년여 만에 갈아 치웠다. /연합뉴스